

영광 인근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 재추진

전남도, 호남고속철 완전개통 대비 수도권 암환자 유치

목포역 역세권 중심 ‘다중교류 복합지구’ 개발도

전남도가 호남고속철도 완전개통을 대비해 오는 2018년부터 영광 인근에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의 유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중입자 가속기 개발사업을 맡겨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서 개발돼 실증을 마친 중입자 가속기를 영광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중입자 가속기는 탄소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의료장비로, 차세대 암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수도권 주민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한빛원전과 연계해 국가 암 치료 전문기관인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 유치를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모두 2000억원으로, 국비에서 1900억원, 지방비에서 100억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남도는 인구 2000만명당 1대꼴로 중입자 가속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해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입자 치료센터,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

가속기에 이어 서남권에 또 중입자 가속기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유치 추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물론 도내 주요 병원 및 연구기관과 사전 협의를 마친 뒤 2017년 관련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11년 방사선의학 연구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생산 유발 3000억원, 고용유발 3163명에 이르는 결과에 따라 공동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부터 서남권 중입자치료센터는 전남에 방사선생명기술센터는 광주에 각각 건립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호남고속철 완전 개통에 대비해 목포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다중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역 일원 53만2000㎡에 공공 788억원, 민간 6240억원 등 모두 7028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광장, 도로, 복합역사, 백제호텔 주변 정비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내년에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한 뒤 2016년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다음달 중으로 김영선 행정부지사 주재로 이들 방안이 포함된 호남고속철 완전개통 대비 추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눔 릴레이 하세요”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강성희) 소속 의원 등 50여명은 22일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지킴이’ 선포식을 개최했다. 희망지킴이는 내년 1월 31일까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나눔을 실천한 1인 또는 다수가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전남도의회 제공>

“지방재정-교육재정 통합 운용 필요”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에 보고

누리과정예산 반영 의무화 방안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2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 운용하고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은 선출직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우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현행 칸막이식 재정운용 구조를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은 지방재정과 통합운용 하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며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독립기관도 통합적 국가재정 체계 하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회의는 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해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는 “현행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해 지자체별로 배분되는 만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세입

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며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구조의 환경변화에 맞춰 1960년대부터 50여년간 유지된 지방교부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부세 측정항목에 자체 세입 확대 노력 비중을 강화하고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비를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제안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일몰제 도입 및 집행점검 상시화 ▲정보공시 의무화 등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한페이카드 오늘부터

수도권제의 전국 호환

광주시는 “23일부터 광주지역 교통카드인 ‘한페이카드’를 수도권제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내년 초부터 가능하다.

광주시는 현재 협상 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 용인 경전철, 공항철도 등에서도 한페이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한 장의 카드로 전국의 시내버스, 지하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서비스로 전국 17개 지자체가 합의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 실무추진TF팀’을 구성해 타 시도 교통사업자 간 수수료 조정, 한페이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노인일자리아사업 476억 투입

급여 많은 시장 진입형·연중 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도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노인일자리아 사업에 모두 47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56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남도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3년 노인 일자리 평가에서 노인 일자리아사업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상사업비 1049명분인 5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노인일자리아 사업의 급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전체의 70% 수준으로 줄이고, 수익이 높은 시장 진입형 및 연중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노인 일자리아사업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의 사회공헌형 사업과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의 시장진입형 사업 등 6개 유형을 추진해 2만명에게 42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회 공헌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아사업의 8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급여는 월 36시간에 20만원이다.

또 기간이 9개월인 기존 일자리아사업과는 달리 1년 내내 시행하는 연중 일자리를 올해보다 671명 늘어난 2571명(66억원)에 개안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나 도서관 관리 지원사업 등 공익형사업(1만3210명), 초·중·고 방과 후 학교 등 교육형사업(1960명), 소외계층을 돕는 복지형사업(2670명)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아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기업이 노인을 고용하는 시장형사업 규모도 1481명(21억원)으로, 올해보다 378명 늘어난다. 한편 노인인력개발원 공모에서 호남형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실버택배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10월부터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만족도 조사와 사업단 의견 수렴을 위한 수행기관 워크숍 등을 통해 공급과 수요가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혁신도시 임원들과 막걸리 소통”

이낙연 지사, 비즈니스라운지 등 추진

이낙연 전남지사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임원들과 막걸리를 통한 ‘아날로그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빛가람 혁신도시 내 들어설 비즈니스라운지나 산학연유치지원센터와 관련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선도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혁신도시 임원들과 막걸리 회담을 갖고 불편한 것이 뭐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레(24일)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가 발족해 첫 회의를 갖지만 공식회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디지털 시대이지만 인간 자체가 아날로그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인간대 인간으로 소통하고 교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연초 일정을 비울테니 (막걸리 회담)일정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취임 초부터 도의원, 언론인 등과 관사에서 막걸리를 자주 즐길 정도로 막걸리 애찬론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예산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며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 및 광주시와 협의 노력을 하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도 투자 한다는 생각으로 비즈니스라운지 등을 내년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처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2014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걸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하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빙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VO 이시스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앙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眞김서연)양이 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주)로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